

고흥군, 일자리 통합플랫폼 주민설명회 개최

어업인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고흥 바다



고흥군이 6일 포두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통합플랫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들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11월 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일자리 통합플랫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고흥상생일자리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찾아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일자리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읍·면 단체회의와 연계해 진행된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가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인 '일자리 홈페이지'와 구인·구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흥상생일자리센터' 이용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가 열리는 날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소'도 함께 운영한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특별한 하루' 울포해수욕장 11일 개장

보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44일간 운영되는 울포솔밭해수욕장의 개장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울포솔밭해수욕장은 울창한 해송림과 깨끗한 백사장, 잔잔한 특량만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남해안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수욕차센터와 인접해 해수욕과 녹차 해수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는 피서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해파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유영구역 전 구간에 해파리 방지막을 설치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편의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도 완료해 피서객 맞이에 만전을 기했다.

/김윤성 기자

해남 장학사업기금 271억원 돌파, 미래인재 육성 '든든'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이 2026년 6월 말 기준 271억원을 돌파하며 2032년 500억원 조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교육도시 해남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장학사업기금은 지난 1997년 조성을 시작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든든한 교육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60억원, 2007년과 2012년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예금이자 활용 장학사업을 추진해 온 가운데 2021년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목표를 세우고, 보다 체계적인 기금 확대에 나섰다.

특히 2023년 해남군교육재단 출범을 계기로 장학금 및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재단으로 이관하고, 장학사업기금은 지출 없이 적립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장학사업기금은 미래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순수 적립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박종욱 기자

진도소방서·한국농어촌공사, 수난구조훈련 실시

진도소방서는 최근 의신면 사천2저수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와 진도소방서 구조대가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합동 수난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물놀이 등으로 증가하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하계 수난구조장비 관리 및 조작훈련 ▲수중방향 유지 및 탐색구조 실습 등 수중 적응훈련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훈련 ▲수난사고 사례 및 구조 노하우 공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수난사고를 가정한 구조기법 숙달과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가영 기자

장흥,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개장 21주년 기념행사 성황

장흥군은 지난 7월 4일 전국 최초 주말형 관광지인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에서 개장 21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5년 7월 주5일제 시행에 맞춰 문을 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은 지난 21년간 장흥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지역경제의 중심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할인행사,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시장 곳곳에 활기를 더했다. 주무대에서는 개장 21주년 기념식과 공연, 경품추첨이 이어졌으며, 만남의광장에서는 플리마켓이 운영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장 곳곳은 축제 분위기 속에 활기를 띠며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청해진 크로스핏 전국 대회 열린다!



지난해 7월 완도군에서 열린 크로스핏 대회 경기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청해진스포츠센터 일원에서 청춘들의 심장을 뛰게 할 역동적인 스포츠 축제인 '2026 완도 청해진 크로스핏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완도군이 주최, ㈜에스티비인터내셔널이 주관하며 완도군의회와 완도군체육회가 후원한다.

대회에는 아시아의 크로스핏 및 피트니스 선수 600명과 대회 관계자 등 3,600여 명이 집결해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며, 총 상금은 2천만 원 규모이다.

크로스핏(CrossFit)은 근력과 유산소운동 등 다양한 종목들을 섞어 단시간, 고강도로 신체를 단련하는 극한의 스포츠다.

군은 참가 선수들의 숙련도에 따라 경기 과정을 초급, 중급, 상급 팀으로 세분화하였으며, 1일 차에는 완도의 바다를 달리는 '팀 달리기'

가 펼쳐진다. 2일 차에는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스쿼트 및 철봉, 역도 등 박진감 넘치는 본선 경기가 치러진다.

군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만큼 완도경찰서와 완도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화재 예방, 구급차 상시 배치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여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조성, 안전 관리 등을 꼼꼼하게 했다"면서 "대회를 통해 완도가 해양 스포츠의 중심지이자 스포츠 마케팅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